

회전근 개의 외상성 파열과 비외상성 파열의 빈도
Incidence of Traumatic and Nontraumatic Tear of the Rotator Cuff
울산대학교 서울 중앙병원 정형외과학교실
전재명, 주동만, 김기용

대다수의 회전근 개의 파열은 뚜렷한 외상의 병력이 없이 발생하지만, 간혹 외상에 의한 과도한 힘이 주어졌을 경우에도 회전근 개의 파열이 유발될 수 있다. 그러나 회전근 개 파열에 있어서 외상의 유무에 따른 양상의 차이가 분명하지가 않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외상력이 있는 회전근 개의 파열과 외상력이 없는 회전근 개 파열의 발생 빈도를 비교 검토하고, 각각의 임상적 결과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데 있었다.

1995년 3월 부터 1997년 8월 까지 회전근개 질환으로 진단하였던 1008예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에서 148예는 뚜렷한 외상력 후에 증상이 시작하였으며, 860예는 외상력 없이 증상이 발현되었다. 회전근 개 파열의 유무를 알기 위해 MRI를 촬영하였던 환자는 외상력이 있었던 환자중에서는 87예(59%)였으며, 외상력이 없었던 환자에서는 230예(26%)이었으며, 전층파열 및 부분층파열등의 빈도를 비교하였다. 수술적 가료를 받은 환자중에서 외상력이 있었던 환자는 44예(30%)였으며, 외상력이 없었던 예는 68예(8%)이었다. 수술을 시행하였던 환자중에서 추시가 불가능하였던 환자 7예를 제외하고 103예(92%)의 환자에 대해서, 미국 견주관절학회의 견관절 기능 평가법을 기준하여, 평균 19개월(8개월~37개월)의 추시를 통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외상력이 있었던 경우에 회전근 개의 파열이 있었던 비율은 148예 중에서 56예(38%)였으며, 외상력이 없었던 경우는 860예중에서 93예(11%)이었으며, 전층파열의 비율도 외상력이 있었던 경우(38예, 26%)가 외상력이 없었던 경우(43예, 5%)에 비해 호발하였다. 수술을 시행한 결과는 외상력이 있었던 경우에는 83%, 외상력이 없었던 예에서는 88%에서 우수 및 양호의 결과를 얻어서 그 차이가 뚜렷하지 않았으며, 증상이 지속된 기간이나 파열의 크기등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로 미루어 보아 외상이 있는 경우에는 회전근 개 파열의 빈도가 증가한다고 생각되며, 임상적으로 회전근 개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 외상력이 있을 경우에는 회전근 개 파열의 유무를 밝히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파열이 확인되면 봉합술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